

목포해수청,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시행

- 여객선 운항횟수 108여회 증회, 15만명 이용 예상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정문수)은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섬 주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오는 9월 27일(수)부터 10월 3일(화)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.

목포해수청은 대책 기간 동안 증선·증회를 통해 평소보다 108여 회 증가한 2,747회를 운항하여 여행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.

특히 귀성객이 몰리는 완도-청산 및 당목-서성 항로는 여객선 1척을 추가 투입하고, 완도-청산, 화흥포-소안 등 총 3개 항로는 운항횟수를 늘린다.

이 기간 이용객은 전년 대비 약 2% 증가한 15만5천 명으로 전망되며, 추석 다음 날인 9월 30일(토)에는 3만1천여 명이 몰리면서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목포해수청은 이번 추석 연휴에 앞서 여객선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마쳤고, 대책 기간 중에는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추석 연휴 기간 안전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며 “여객선 이용객은 신분증을 지참하고, 출항 10분 전에 승선을 완료하는 등 여객선 승하선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목포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사무관	김왕식 (061-280-1640)
		담당자	주무관	김일선 (061-280-1642)